

보도	2024.4.26.(금) 14:00	배포	2024.4.26.(금)	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권재순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태훈 (02-3145-7260)

## '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### I 개 요

- '24.4.26.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을 대상으로 「'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」을 개최
  -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으며,
  -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,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
-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검사 강화 등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한편,
  -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결과 대외 공개 등의 방안을 논의

#### <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요>

구 분	내 용
일 시	'24.4.26.(금) 14:00~15:30
장 소	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
참석자	소속 설계사 수 1,000명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 등(약 60명)

## II

## 워크숍 주요 내용

### 1 2024년 GA 검사·제재 중점 추진방향

-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\*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

\*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CSM(계약서비스마진) 확보 경쟁, 시장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, GA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

- GA업계 내 高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 및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

- 작성계약, 불완전판매\*, 부당승환,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점 강화

\* 단기납 종신보험, 경영인정기보험 등

### 2 GA 연계검사 등 판매채널 위법행위 점검 강화

- 보험회사 -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(수시)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·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예정

- **(연계검사)** 대형 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 또는 연계\*하여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

\* (예) '24.3월 A손보(보험회사) - A법인보험대리점(자회사형 GA) 연계검사 실시

- **(테마검사)**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\*를 실시

\* (예)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社(부당승환 가능성 ↑)에 대한 부당승환 검사

#### <예시> GA 중점 검사항목

- 1 **(위법행위)** 작성계약, 수수료 부당지급, 무자격 보험모집, 부당승환 등 GA 영업 현장에서 지속·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
- 2 **(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마련)**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, 체계, 절차 (예: 수금이관 등)를 적절하게 구비하고 운영하는지 여부

### 3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개선

- 금감원은 대형 GA(설계사 수 500명 이상)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를 도입('22년)하여 시범운영 중
  -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·인식이 부족
  - 아울러, 내부통제 우수회사와 미흡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·차별화\*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
- \*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회사나 일반소비자의 의사결정(제휴, 보험가입 등)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#### <참고> GA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

- (작성계약) 작성계약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이를 활용한 자체점검 실시·적발 실적 등이 미흡
- (준법감시조직) 준법감시 지원인력 규모가 부족하고, 준법감시인의 타 업무 겸직 등 독립성 확보 노력이 미흡

-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(단계적) 등 추진
  - (평가모델 개선) 업계와 T/F를 구성하여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모델을 개선·보완\*('24.6월)
    - \* 장기 유지율, 설계사 정착(변동)률 등의 지표를 추가반영하고, 작성계약,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
  - ※ 하반기중 시범적용을 거쳐 연말까지 평가매뉴얼을 개정하고,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
  - (평가결과 대외 공개) 보험회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·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'25년부터 대외 공개\*
    - \* 공개 수준은 단계적으로 확대(예: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% 공개 → 전체 공개)
  - (감독·검사업무 활용) GA 감독·검사업무에 정보를 활용\*하고,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점검 시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
    - \* (예)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 검토(보험회사 감면 가능 사례와 유사하게 운영)

## 4 의도적·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향

- 향후 GA의 의도적·조직적인 위법행위(예: 작성계약)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 적용
  - **(기관·신분 제재)**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
  - **(금전 제재)**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 부과
- ※ 단, 자율시정기간\*(24.5~7월) 중 위법사항을 시정(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 반환)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종전 수준(과태료 감경 적용 등)으로 조치
- \* 동 기간중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하여 금감원에 신고

## III 향후 계획

- **(향후 계획)**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,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,
  -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,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
- **(기대 효과)** 작성계약,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,
  -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